

# 팬데믹 시대, 치유의 힘과 삶의 지혜를 찾다



###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 Minds Rising, Spirits Tuning

‘주류를 벗어난 다양한 시각으로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삶의 지혜를 찾다.’  
내년 열리는 제13회 광주비엔날레(2월21일~5월9일)는 관습과 고정관념을 깨고 사머니즘, 치유, 억압된 역사 등에 대한 동시대의 현안을 새로운 시각으로 형상화한 다채로운 작품을 만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이 1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독일 베를린에 머무는 나타나샤 진발라, 데프테 아야스 공동예술감독을 영상으로 연결해 발표한 참여작가 명단에는 핀란드 등 북유럽 원주민의 삶을 소재로 한 작업을 하는 작가 등 지금까지 비엔날레에서 만나기 힘들었던, ‘새로운 목소리로 발언하는’ 작가들이 대거 참여한 점이 특징이다.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Minds Rising, Spirits Tuning)’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49개국 69명의 작가가 작품을 선보인다. 두 예술감독은 “이번 비엔날레의 키워드 중 하나가 다양성이며 서구 주류 중심의 전시에서 벗어나 지적학적 경계를 허물고 내부인과 외부인, 합법과 불법,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해체해 마음을 확장하고 포용적인 예술적 실천을 하는 작가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무속신앙 등 전세계 사머니즘을 소재로 작업하며 ‘치유의 힘’을 이야기하는 작가들이 대거 참여한 것도 눈에 띈다. 그밖에 광주 5·18 등

###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발표

#### 49개국 69명...신작 41점 전시 사머니즘·국가폭력 등 다양한 주제 북유럽 원주민 등 다양한 작가 참여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광주극장 등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에도’의 문제를 전 세계 민주화운동을 다룬 작품들과 함께 선보이며 코로나 19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모두 41점의 신작이 발표된다. 광주에서는 조현택·이상호 작가가 참여해 신작과 기존 작품을 함께 선보이며 지난년부터 광주와 서울 등지를 방문했던 작가들도 국가폭력, 페미니즘, 사머니즘 등을 주제로 다양한 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엔날레 사상 처음으로 비엔날레 전시관 1층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이번 전시는 비엔날레전시관 이외에 국립광주박물관 등 다양한 공간을 전시장으로 활용, 각 전시 장소의 특성을 반영해 참여작가와 작품을 배치해 눈길을 끈다.

메인 전시관인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는 과거와 현재의 예술적 환경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한국 미술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시각 예술가들을 한 데 모았다. 민정기·이갑철·문경원 등 미완의 역사와 억압된 연대기를 다루는 작가들의 목격작이 전시될 예정이며 사머니즘박물관과 서울 가회박물관의 아카이브 및 소장품과 함께 작가들의 신작 커미션이 함께 전시된다.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죽음과 사후 세계, 육체

의 한계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유물과 예술작품을 통해 풀어낸다. 데오 에세투, 트라잘 하렐, 갈라 포라스 킴, 클리산네 스타타코스 등의 신작을 만나는 공간이다.

개관 85주년을 맞은 광주극장에서는 ‘극장’이라는 정체성을 살린 작품이 전시된다. 주디 라들은 라이브 오케스트라 공연과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이미지를 결합한 설치 작품을 선보이고 조피아 리데트는 1970년대 폴란드 일상을 담은 포토 몽타주를 전시한다.

올해 처음 전시장으로 활용되는 양림동 선교사 묘지 끝자락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는 크라크리트 아루나느드차이, 시셀 툴라스, 김상돈 작가 등의 신작을 만날 수 있다.

‘라이브 오르간(Live Organ)’은 이번 비엔날레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을 탐색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아나 프라바츠와 키라 노바 등의 작품은 비엔날레 웹사이트와 SNS 등에서 순차적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 시작된 공공프로그램 GB토크 ‘수면으로 떠오르기: 연대의 미래를 설치하기’는 민중 운동의 시대적 흐름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전 세계 학자, 예술가, 사회운동가가 참여하는 온라인 토크, 포럼 등으로 구성됐다.

출판물 ‘뼈보다 단단한(Stronger Than Bone)’은 로봇, 테크노 페미니즘, 성적 자유와 성폭력, 모계 문화, 디지털 정체성 등 광범위한 주제 및 이슈와 관련된 다채로운 접근법을 담고 있다.

그밖에 은암미술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옛 국군통합병원에서 열리는 GB 커미션에서는 시오 타 치하루, 호 추 니엔, 타렉 아투이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광주비엔날레는 이번달부터 전시장 공사를 시작하고 홍보영상을 촬영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민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우리 영화의 얼굴’ ‘거장의 필모그래피’

#### 24일까지 광주극장 관객과의 대화·북토크도 진행



하안리본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영화산업이 다방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전국예술영화관 협회가 독립예술영화들의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관객과 함께 만들어 간 시간과 그 속의 얼굴들을 조명하는 기획전 ‘우리 영화의 얼굴’을 선보이고 있다.

전국 15개 극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은 130편의 다양한 영화와 색다른 GV(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극장의 존재 의미와 영화 속 다양한 이야기를 펼쳐 보인다.

광주극장 또한 오는 24일까지 기획전에 참여, ‘우리 영화의 얼굴’과 ‘거장의 필모그래피, 마카엘 하네케’ 등 2개 섹션을 진행 중이다. 첫 번째 섹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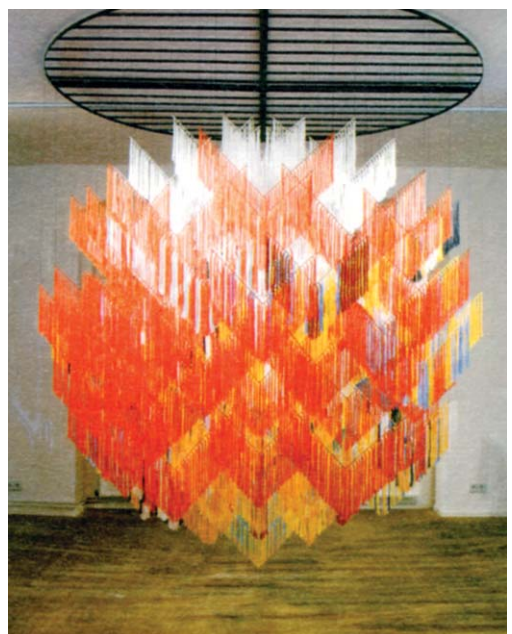
인 ‘우리 영화의 얼굴’에서는 5·18 시민군의 진실을 추적한 첫 작품 ‘김군’과 5·18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다룬 최초의 영화 ‘황무지 5월의 고해’ 2편이 상영된다.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아이들 이야기를 담은 ‘우리들’과 50대 엄마와 비혼을 선언한 딸이 독립하는 여정을 담은 가족 다큐 ‘웰컴 투 월드’도 공개된다. 첫사랑의 비밀스러운 기억을 찾아 설원이 펼쳐진 여행지로 떠나는 감성 멜로 ‘유희에게’와 소수 인권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함께 넘어야 할 현실적인 고민을 담아낸 쿼터 멜로 ‘담쟁이’도 만나볼 수 있다.

‘거장의 필모그래피’ 섹션에서는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2회 연속 수상한 거장 감독 마카엘 하네케의 영화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퍼니 게임’(1997)과 ‘히든’(2005), ‘하안 리본’(2009) 등 3편이 상영된다. 이 섹션을 통해 미디어의 폭력성, 소외와 비인간화라는 현대사회의 병리현상을 밀도 있게 담은 거장의 영화세계를 만날 수 있다.

한편 기획전 기간 중에는 GV도 마련된다. 오는 21일(오후 3시 10분) ‘황무지 5월의 고해’ 상영 이후에는 김태영 감독과의 GV가 진행될 예정이다. 22일(오후 3시 20분)에는 영화 ‘김군’을 연출한 강상우 감독이 쓴 책 ‘김군을 찾아서’를 주제로 독립서점 소년의 서에서 북토크를 진행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오우티 피에스키 작 'Beavvit/함께 떠오르기'



아나 마리아 밀란 '행복한 사람들'

## 광주연극협회 ‘5·18 낭독공연’, 21~22일 예술극장 통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연극을 낭독극으로 먼저 만나보는 낭독공연이 열린다.

(사)한국연극협회 광주광역시지회(회장 원광연)가 21일 오후 6시, 22일 오후 3시 예술극장 통에서 ‘5·18 낭독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기획됐으며, 6개의 지역 극단과 50여명의 광주 예술인들이 신규 창작 희곡을 무대에 올리는 자리다. 지난 6·8월 진행된 공모에는 전국에서 20여 작품이 접수됐으며, 최종 선정된 6개의 작품 중에는 서울과 경기도 출신 작가의 작품도 포함돼 있다.

21일에는 광주연극배우협회가 최규하 작가의 ‘봄’, 극단 청춘이 민선이 작가의 ‘팔십년, 오월 전남 광주’, 극단 Y가 신영은 작가의 ‘우리집’을 공연한다. ‘봄’은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이야기를 그리며, ‘팔십년, 오월 전남 광주’는 치매에 걸린 한 노인이 꿈에서 죽은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80년 5월을 더듬어가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집’은 평범한 가족에게 들이닥친 5·18을 그린다.

22일에는 극단 좋은친구들이 김이율 작가의 ‘넌 나에게 꽃을 심었다’, 극단 아트컴퍼니원이 원광

연 작가의 ‘잃어버린 나’, 광주여성연극인연합회가 양태훈 작가의 ‘꿈’을 선보인다. ‘넌 나에게 꽃을 심었다’는 80년 5월에 얽힌 한 가족의 비밀스런 이야기를 통해 그날의 고통을 이야기하며, ‘잃어버린 나’는 1980년 5월 이후 실종된 친구에 대한 내용이다. 또, ‘꿈’은 두 여성이 5·18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서 겪게 되는 감정변화에 주목했다.

이 작품들은 추후 희곡집으로 엮여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문의 062-523-729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문화다양성 증진 광주비빔 영화제

#### 21일~22일 광주교대 주차장 드라이브 인...4편 무료 상영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자동차를 탄 채 감상하는 ‘드라이브인’ 영화제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1일~22일 오후 5시 30분부터 광주교육대 풍향문화관 주차장에서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광주비빔영화제’를 개최한다.

‘비빔(BIBIM)’은 ‘Bring International

Borders Into Movie’의 약자로 영화를 매개로 다양한 가치를 확산시키는 취지다.

문화재단은 이번 ‘광주비빔영화제’를 위해 지역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등으로부터 영화 추천을 받았다. 먼저 부탄의 파우 초이민 노르지 감독의 ‘교실안의 야크’는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교사가 벽지학교의 아이들과 만나면서 느끼는 진정한 삶의 의미에 초점을 맞췄다.

몽골 운다라마 감독의 ‘Single Ladies3’은 이별을 겪은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사골로 향하는 세 명의 미혼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았으며 지혜원 감독의 ‘안녕, 미누’는 이주노동자 1세대 ‘미누’의 추방 이후 내팔에서의 삶과 한국에 대한 소회를 그렸다. 마지막으로 곽 준 감독 등이 제작한 ‘10년’은 자유가 억압된 홍콩 현실을 비판적 시선으로 연출한 5편의 단편이다.

이번 영화제는 20일까지 사전 예약과 영화제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 받는다. 차량이 없는 시민들을 위해 선착순 차량도 대어준다. 문의 670-746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교실안의 야크’



### LOTTE CINEMA | 중앙로관

### 즐거움 문화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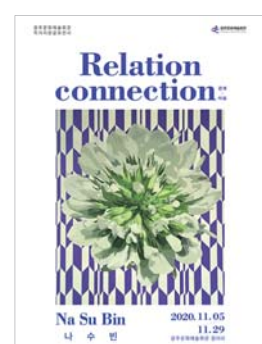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도굴
- 2관 도굴
- 3관 도굴
- 4관 내가 죽던 날
- 5관 마리 퀴리, 요가학원: 죽음의 쿤달리니
- 6관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 9관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 7관 씨네마필름 나이스 걸 라이크 유, 담보
- 8관 씨네마필름 택스 콜렉터, 킹덤 오브 헤븐: 디렉터스 컷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작가공모 전시  
Relation connection 나수빈 개인전  
2020. 11.5(목) ~ 11.29(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광주시립오페라단 제6회 정기공연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2020. 11. 30(월) ~ 12. 1(화)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시립발레단 제127회 정기공연  
잠자는 숲 속의 미녀  
2020.12.18(금) ~ 2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